

감사를 드리며.....



박 병규 전 부산 선교부장

저의 부름을 알려 주신 태너 부대관장님의 목소리를 전화로 들은 것이 오랜듯 싶지 않은데 3년이 참 빠르게 지났습니다. 그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끌어 주신 총관리 직원들에게도 감사하며 부산 선교부의 기초를 훌륭히 다져 놓으신 두 분 선임 선교부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함께 일하였던 선교사들과 스테이크 부장님들과 선교부와 지방부 직원들께도 감사와 사랑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 부름을 기쁘게 받아들여 함께 노력해 온 저의 가족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저는 1957년 10월에 우리 교회를 찾았고 그 다음해 3월에 회원이 되었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탓으로 저는 복음 선교사로 봉사할 훌륭한 기회를 그냥 흘려 보냈습니다.

그후 광주에 교회가 설립되었고, 저도 하나님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모임 중에 선교 사업이 언급될 때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노후에 부부 선교사로 나가야겠다는 결의를 마음 속으로 다지곤 하였습니다. 이같은 저의 작은 소망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셨습니다. 축복사의 축복문에는 “국내외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축복문이 이렇게 실현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저의 선교사 기간에 420여 명의 선교사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훌륭한 특성이 있어서 내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귀환할 때 때때로 부모님이 오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떨어져 지내던 부모와 자녀의 재회 장면은 뛰어나 감격스러운 것이어서 후일 하늘에서 주님과 그렇게 만나야겠다는 열망을 갖게 했습니다.

때때로 선교사들에게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의 어려움은 사소한 것이 되었고, 더 많은 회원들을 관리하시는 감독님들과 스테이크 부장님들의 노고와 책임을 생각하였습니다.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만 것처럼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선교사 기간은 참으로 훌륭한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주님과 더욱 가깝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지를 배웠고, 성신과 계시의 영이 왜 필요한 지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할 일은 이같은 경험을 토대로 보다 쓸모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성원을 명심하여 최선의 경주를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우리 영의 아버지이시며 전세에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압니다.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음을 압니다.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광주 스테이크 노년의 밤

(박 병규 선교부장님 귀환 및 광주 구모라 합창단 2회 정기 발표회)

광주 스테이크에서는 지난 7월 7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총장 와드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 병규 전 선교부장의 귀환을 환영하는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박 하천 스테이크 부장의 환영사와 이 영지 자매의 말씀과 박 병규 전 부산 선교부장의 말씀을 들었는데, 선교 기간 동안에 받은 축복과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영원한 목표에 관해 말씀하였다. 한편 이날 모임과 함께 한 "구모라" 합창단 정기 발표회는 지난 1월 이어 2회 공연으로 찬송가 165장, 255장, 233장과 민요 "도라지", "조국 찬가" "남촌", 성가곡으로 "여호와는 위대하다"와 "분향을 향하네"를 불렀는데, 특히 찬송가 #233장은 이 합창단이 가장 즐겨 부르는 곡이다.

광주 스테이크 "구모라" 합창단의 단장에는 이 신영 형제, 스테이크 음악 고문은 임 종하 고등 평의원이며 스테이크 음악 위원장과 지휘자에 김 용 형제, 부지휘자는 유 승구 형제, 반주자에는 4명의 자매가 수고하고 있다.

특히 이 합창단의 애칭은 "40명의 태버네를 합창단"인데 이 애칭은 지난 스테이크 대회에서 로이든 지 데릭 장로가 붙여준 것이기도 하다.

한편 부산 선교부에서도 6월 24일 수정 와드에서 박 병규 선교부장의 환송 모임을 가졌다.

한 인상 장로를 비롯하여 부산 지역의 많은 회원들이 함께 한 이 모임에서 박 부장은 간증을 전해 주었고 한 인상 장로는

3년 동안 수고한 박 부장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해주었다.

한편 부산 스테이크와 부산 서 스테이크에서는 회원들을 대신하여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

제임즈 엠 하퍼 장로 (새로운 부산 선교부장)



제임즈 엠 하퍼 선교부장(33세)은 유타주 오림시 제98와드 감독단 제1보좌였다. 그는 아이다호주 아이다호 폴스에서 렉스 하퍼와 루이즈 밋첼 하퍼 사이에 태어났다. 1971년에 콜린 힐 자매와 솔트레이크 신전에서 결혼하여 네 자매를 두고 있다.

브리감 영 대학교 가족학과 부교수인 하퍼 선교부장은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받고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교회에서는 고등 평의원, 지부장단 보좌, 와드 서기, 장로 정원회 회장 및 주일학교 교사를 역임했다. 또한 1969~1971년에 한국에서 복음 선교사로 봉사했다.

하퍼 자매의 고향은 아이다호주 포카텔 로이며 레오나드 만과 델피아 라이드 힐 사이에서 태어났다. 하퍼 자매는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로 일하였으며 상호부조회 회장, 와드 청년 회장단 보좌, 초등학교 및 상호부조회 교사를 역임했다.

물몬 태버네클 합창단이 올림픽 축제에서 노래부른다



올림픽 축제에서 미국의 TV4채널을 통해 전 세계에 방영되는 합창단 공연 모습

7월 26일에 통신 위성으로 전세계에 위성 중계된 ABC-TV의 세 시간짜리 올림픽 축제를 시작하면서 배우인 알렉산더 스클비는 이렇게 말했다.

“이 축제를 국가의 보배인 물몬 태버네클 합창단의 합창으로 국가를 부르게 된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제몰드 디 오블리의 지휘로 합창단은 “성조기(Star Spangled Banner)를 부르면서 축제를 시작해서 “아름다운 미국이여”(America, the Beautiful)를 부르면서 마쳤다.

이 실황은 7월 25일에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야외 그리스 극장에서 약 6,000명에 이르는 관객들 앞에서 공연된 것이다. 인기 배우인 제인 폰다와 로버트 와그너가 사회를 맡은 이 프로그램은 세계 정상외 연예인들의 공연으로 특색을 이루었다.

합창단 단장인 웬델 엠 스모트는 이렇게 보고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금메달 수준—공연 예술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딴 사람들—의 공연이었

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정상인 금메달 기록 보유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공연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에 커다란 영광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연출자인 볼핀클은 텔레비전 시청자 수는 5억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

독신 성인 중창 대회 (동대문 스테이크)

동대문 스테이크에서는 6월 23일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조 민구 부장이 감리하는 가운데 용두 와드에서 독신 성인 중창 대회를 가졌다.

동대문 스테이크 소속의 각 와드, 지부에서는 그동안 이 대회를 위하여 많은 연습을 하였으며 그 결과 아름다운 화음을 청중에게 선사하였다.

우열을 가리기 힘든 이번 대회에서 우수상은 면목 와드가 받았으며 최우수 상은 용두 와드가 차지하였다. *